

## News

### BOE 베일리 총재 "마이너스 금리 고려 안 해"

연합인포맥스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BOE) 총재, "금리를 제로 이하로 내리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어떤 것도 배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지만, BOE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옮기는 것은 아주 매우 큰 스텝이며, 광범위한 의사소통 연습이 필요할 것"

### 불안할 땐 현금... 부동산 내다파는 은행들

조선비즈

시중은행들이 이달 들어 1,700억원에 달하는 보유 부동산 매각에 착수...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유휴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

은행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지방 유휴 부동산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국민은행, 지난 2월 7곳의 유휴 부동산 매각 모두 유:

### 금융데이터 거래소 출범은 했지만 시중銀 '시큰둥'

파이낸셜뉴스

금융정보를 사고 파는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 했지만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은행들은 별다른 참여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하루 평균 금융정보 거래량 10건...은행들은 별도 신고없이도 데이터를 등록하고 팔 수 있지만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참여 움직임은 아직 없어...

### 인행 대출이자 낮다는 말은 옛말... 시중은행이 더 싸졌다

파이낸셜뉴스

4월 시중은행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신한은행이 2.56%로 가장 낮은 가운데, 우리은행(2.69%), 농협은행(2.82%),국민은행(2.93%), 하나은행(2.95%) 순 하지만 카카오펙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3.16%로 5대 은행보다 높고, 여전히 3%대를 유지...고객층을 어느정도 확보한 만큼 수익성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 코로나에도 실적 좋았다...손보사 1분기 호조

이데일리

코로나19 속에서도 보험사들의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장기보험 등 매출 증가와 사업비 감소 등이 주요 원인

이익 작년보다 대체로 늘어..메리츠화재 이익 63% 급증...사업비 감소, 투자이익률 상승..예상보다 선방...삼성화재는 울산 화학공장에 이익 하락

### 비대면 일상화 시대... "원격의료 더 미룰 수 없다"

디지털타임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의료체계인 '원격의료' 도입논의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원격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목소리...

국내에서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최초 진행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20여년 넘게 제자리 걸음

### 한은,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위해 産銀 통해 '징검다리 대출'

한국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만나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저신용등급 회사채 및 CP 등 20조원어치 매입을 위한 SPV 설립 문제 등을 논 양측은 한은이 산업은행에 대출한 다음 산은 산하에 SPV를 두는 내용을 협의...부와 한은은 다음주께 해당 방안을 발표할 예정

### 라임 펀드 판매사들, '배드뱅크' 설립 참여 의사 확인

연합뉴스

은행과 증권사 등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은 배드뱅크 설립 참여 방침을 확정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전달...배드뱅크는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할 금감원 관계자, "판매사들의 자율적인 결정이고 아직 설립이 논의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협약이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

####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